



세 나라 이야기

2026년 4월 23일

편집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샬롬!

말레시아의 뜨거운 여름의 열기와 조지아의 겨울의 지나, 벚꽃이 피어나는 봄에 일본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파송 이후 세 나라를 지나온 그 여정 가운데, 한 걸음도 혼자 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사역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수십만 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호 밖에 놓인 이들 곁에서 묵묵히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제가 방문한 Joyful Learning Center도 그런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협력하여 세운 이 학교에서는, 미얀마 출신 선생님들과 함께 약 1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믿음 안에서 매일 예배로 아이들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어가 공용어이지만,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나라인 만큼 영어 또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레이시아를 떠날 소망을 품은 난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말레이어보다 영어로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십니다. Joyful Learning Center에서

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미얀마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유창하지 않은 영어이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랫동안 품어온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영어 프로그램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ETI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을 때, 영어 실력과 신앙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자신들의 기도 응답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해하셨습니다.

9명의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록 난민으로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땅에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일의 도전이 있습니다. 100여 명의 점심을 매일 책임져야 하고, 새로운 커리큘럼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간이 부족하여 새 학기에 새 학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래층 공간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I thank God for bringing this precious ETI program to our Joyful Learning Center. Through this program, all of our teachers, including me, have improved a lot—not only in English but also spiritually.

Thank you for preparing the wonderful file and materials. They are very helpful for us.

May God bless the ETI program, and through this program may children all over the world be educated.

Thank you.

-Ruth

"



말레이시아 사역을 마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작지만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 조지아였습니다. 조지아를 언급할 때마다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 조지아."



국민의 85%가 조지아 정교회 신앙을 따르는 이 나라에서, 개신교 신자들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 부르지 못하고 '프로테스탄트'라 불립니다.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다는 것조차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심한 핍박은 없지만, 개신교인을 사회가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랜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조지아 정교회의 자부심은 대단하며, 그만큼 '개신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교적·사회적·문화적 장벽이 높은 나라입니다.

조지아는 최근 많은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선교지로 마음에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두 차례의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해, 두 번째는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지역 교회의 목회자와 전도사 등 현지 리더들을 위해 열렸습니다.

아직 학교에서는 러시아어가 필수 외국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위기가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어를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고, ETI를 통해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께는 새로운 사역의 문이, 현지 리더들께는 복음 전도의 새로운 도구가 될 ETI가 지역 센터와 교회 안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 마지막 사역지는 벚꽃이 만발한 일본 동경이었습니다. 중국인으로 일본에 살면서 교회를 만나고 크리스찬 학교 선생님이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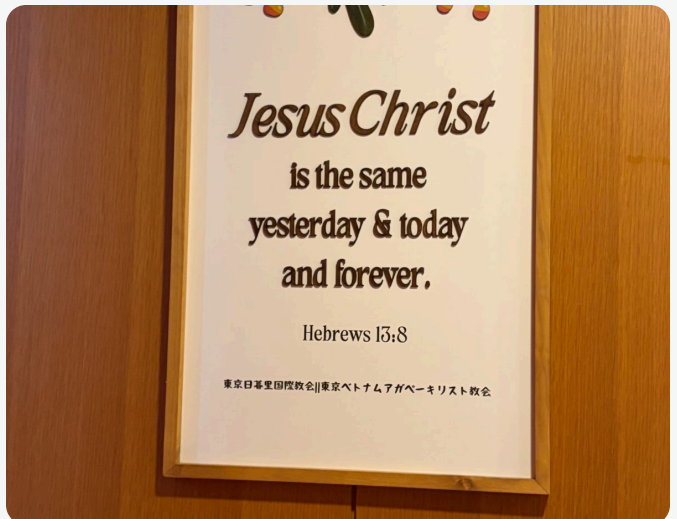


중국 선교를 뒤로하고 일본에서 중국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의 요청이 있으셔서 화교 국제 학교의 선생님들과 ETI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계셨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디아스포라를 아버지께로 이끄시고 이들을 통해 그들의 민족이 살아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에 세워진 중국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공부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세운 학교입니다. 일본 학교 대신 신앙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시작된 곳입니다.

교육과정은 영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규 수업 외의 일상적인 소통은 중국어와 일본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TI를 통해 영어 말하기 교육이 강화되고, 학교 일상 속에서 영어가 더욱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물론, 영어를 더 연습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께도 ETI가 실질적인 도구로 잘 자리잡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크리스천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키워가는 선생님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을 통해 일본 안의 중국인들뿐 아니라, 그 땅과 민족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1. ETI 훈련을 받으신 선교사님들, 현지 리더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복음을 위한 도구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길
2. 말레지아 난민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한 좋은 교사가 계속 세워지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3.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기적과 같이 치유되도록

주님의 은혜안에서, Abigail 드림